

방송가 소식

불교방송 고승음성범어집 출시

불교방송은 크리스마스 오도와 열반의 세계를 드라마로 엮은 음성범어집 '균여대사(15집)' '대각국사의전(16집)' '보조국사 지눌(17집)' 등 고승열전시리즈 3편을 지난 10월 30일 오디오로 출시했다.

한국불교사의 격랑속에 불교의 맥을 이어온 균여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의 삶을 드라마로 엮은 이 범어집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고승열전'을 통해 방송된 것을 오디오로 재편집한 것.

특히 오세영씨(문학평론가)의 솔직한 문체와 박용기위원의 힘있는 연출로 재현된 이 드라마를 통해 마치 큰스님들의 회상에서 만나듯 생생함을 느낄수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방송 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승열전시리즈는 10만여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12월경에는 새로 '일연스님'을 출시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불교설화 2집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철스님 2주기 특집 '백일법문'

불교방송은 성철스님의 열반 2주기를 맞아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집방송을 내보낸다.

'백일법문' (6일~11일 19:20~20:00)은 성철스님이 남긴 육성법어인 백일법문을 주

제별로 나눠 3편으로 재편집하여 들어본다. 또 12일에는 토론 프로그램 '성철스님의 정신을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1·2부로 오후 6시15분부터 2시간여 동안 방송된다.

중국상해에 한국어 교육방송

중국에서는 최초로 내년 3월1일부터 한국어교육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된다.

불자실업인 업상호 건영그룹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중국 상해시 교육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송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매주 화 목 일요일 오후 8시부터 매해 15분씩 방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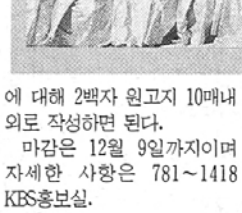


KBS '찬란한 여명' 시청소감문 공모

개화호 이동인(김갑수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KBS 찬란한 여명(이녹영PD 토·일 21:40~22:40)이 시청소감을 공모한다.

시청소감 공모는 10월 28일에 방영된 첫회분부터 연말까지 방송될 12회까지의 방송분에 대해 2백자 원고지 10매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마감은 12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781-1418 KBS홍보실.



KBS 불교연구회 29명 5계수지

KBS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 회원 29명이 10월 23일 사내법회장소인 KBS어린이합창단실에서 삼보사 주지 운

자원스님을 계사로 신도 5계를 받고 불자다운 삶을 발원했다.

'소림사 달마대사' 비디오 나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불도의 길을 걸은 달마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흥룡영화 '소림사 달마대사'가 비디오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있다.

이 영화는 인도 향지국 왕

자 달마가 왕위를 버리고 구도의 길로 들어서 득도한 뒤 불심지극한 양무제와 만나지만 뜻하는 바가 서로 달라 소림사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줄거리.

방송포교의 기쁨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이 뛰고 있다. 좋은 방송 장비를 펴는 방송인들, 그들이 뛰고 있다. 방송인들, 그들이 뛰고 있다. 방송인들, 그들이 뛰고 있다.

- BBS 프로그램 후원회
- BBS 교통통신원
- btn 후원회
- btn 자원봉사단
- 염불공양 모임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탄탄한 신행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BBS 프로그램 후원회(회장 상륜스님)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듣고싶다'는 청취자들의 자발적인 원력으로 91년 창립되어 기금 2억2천여만원을 적립해두고 매달 6백여만원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회원만도 3천5백여명에 이르러 있어 타방송사도 부러워하는 방송후원회의 대표적 단체로 성장했다.



◇ 불교TV 자원봉사단이 지난 10월 27일 발대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사장 태운스님이 감사서단장에게 봉사단기를 전달하는 장면.

후원단체 방송포교 주춧돌

재정지원·홍보등 자발참여로 '질 향상' 기여

자원봉사단 '염불공양모임'과 함께 창립돼 '달리는 포교'로 교통정보와 프로그램 차등지원, 자원봉사 등 불교발전의 한 몫을 하고 있으며 5백여

이와함께 불교텔레비전의 후원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교TV의 원조격인 btn 후원회는 부산후원회(회장 이문근)와 광주후원회(회장 이범식)가 창립때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4백여 회원이 가입해 자체적으로 월간집지도 발간하는등 부산·경남지역에 불교TV를 알리고 뒷바라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새스님 304명 탄생

이와함께 불교텔레비전의 후원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교TV의 원조격인 btn 후원회는 부산후원회(회장 이문근)와 광주후원회(회장 이범식)가 창립때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4백여 회원이 가입해 자체적으로 월간집지도 발간하는등 부산·경남지역에 불교TV를 알리고 뒷바라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19일 btn 부산지사는 '염불공양모임' 발대식을 가졌다.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선정)은 불교가족의 장애등 봉사활동과 불우가족 지원사업을 펼쳐 온다.

지난 10월 27일 창립된 1백6명의 btn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은 프로그램제작 보조와 자

복지·특위법등 신설키로

태고종 중헌법개정위...28일 중회상정

태고종 중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보안스님)는 지난 10월 27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초위원 및 전체회의를 갖고 제7회 정기중앙총회에 상정할 중헌법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교류와 통일·환경·인권등 중단의 대사회적 현안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법,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회복지원법을 비롯 감사원법, 교육원법, 분담금징수법 등 신설 △총무원법, 사정원법 등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득도자격과 승려 의무강화를 위한 승니법과 중앙사정원과 지방사정원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정원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대구 진각회관 불교방송에 찬조

진각종 종의회(의장 헤일)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 통리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개최, 대구시 중구에 건립중인 진각회관을 대구불교방송국에 찬조하기로 결의했다.

제적의원 37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종의회에서 원정각 대종사 추모비 건립, 제29대 사감원장으로 진당대정사를 선출, 전국 소재 각 심인당 인접부지 및 토지 매입 등을 결의했다.

'사랑의 소리방송' 교계참여 가능

"장애인에 자비퍼는 매체로 활용"

12월 20일 개국될 장애인 전문방송 '사랑의 소리방송'에 불교계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랑의 소리방송은 장애인관련 생활정보를 실은 일간신문 낭독, 장애인 복지, 취업, 재활을 위한 상담, 장애인이 제작한 드라마, 장애인의 생활상 등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사랑의 소리방송은 점진적으로 외부의 공영기관은 물론 종교사화단체에도 제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노선에 대한 이견이 갈등의 정체가. 건교부는 92년 경주를 통과하여 경주남산과 나란히 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8월22일 문체부가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건철을 따라 경주를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하면서 건교부가 추진중인 노선의 문화재발굴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국민적 시선을 호도하지는 않나하는 의구심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건교부나 문체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것은 두 노선이 동일하여 문화재 훼손이 자명하다. 또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노선이라며 내놓은 문체부의 안은 경주남산과 50m거리를 두고 설계되어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건교부의 발표에 반대여론이 일던 지난 10월, 문체부가 건교부의 노선에 대해 문화재 발굴허가를 내준 일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것은 문체부가 제시한 우회노선은 건교부의 기본노선이라는 사실이다. 건교부는 92년 관보를 통해 기본노선을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이 노선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현재의 노선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런 노선을 문체부가 대안이라며 국민안을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원숭이 농락하듯, 결국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두개의 노선을 내놓고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 그지 없다.

경주고속철도와 朝三暮四

은 오히려 지역 주민과 학계간의 갈등보다 더욱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은 두 부처간의 주장을 듣고 결정만 내리면 될것 같은 분위기다.

원효스님의 중요·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법화경 한장본

모범연화경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법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중구 수송동 46-18수송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 내용, 최고급한지 인쇄, 수제본
■ 표지·케이스는 최고급 한지배접 제작
■ 전7권 최고급 한지 케이스 입
■ 한정판 출간 예정

값 200,000원

※ 선 주문시 15% 할인해 드립니다.